

'광주형 3대 뉴딜'이 '한국판 뉴딜' 선도

'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 10회 마무리 의미·전망·평가와 함께 다양한 제안

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가 22일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강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총 10회의 강좌에 나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은 광주가 펼치고 있는 광주형 3대 뉴딜이 갖는 의미, 전망, 평가와 함께 다양한 제안도 쏟아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방향과 과제'란 제목으로 첫 번째 강좌에 나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전략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은 광주가 제시한 '2045년 탄소제로 목표'는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광주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빛고를 광주는 녹색혁명의 중심도시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면서 "좋은 지도자, 성숙한 시민 등 뒷받침하는 여러 특징이 디지털 요소와 결합된 그린과 함께 연결되면 얼마든지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광주가 에너지 자립을 가장 먼저 시행하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대한민국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4강 '4차 산업혁명과 한국형 뉴딜 전략'이란 제목으로 강의한 윤성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인공지능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광주가 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현재 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3대 분야 외에 문화·콘텐츠사업에 랜선콘서트 등 새로운 장르 서비스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XR을 결합한다면 인공지능 중심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미래 먹거리 분야인 스마트팜 또한 인공지능시대 큰 기회로, 연구진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마련,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국내외 그린뉴딜 정책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강의한 이우진 국무총리실 그린뉴딜 특별보좌관(광주형 3대 뉴딜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광주형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슈퍼컴퓨터, 인재를 모두 갖춘 광주 인공지능 클러스터에서 시작하며,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AI집적단지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



시민 중심으로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함께 행동하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이다"고 평가했다.

그리면서 "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것에 익숙한데 에너지 선택권을 부여해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그린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과 AI산업"에 대해 강의한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을 견인하는 광주형 3대 뉴딜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광주형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슈퍼컴퓨터, 인재를 모두 갖춘 광주 인공지능 클러스터에서 시작하며,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AI집적단지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

다"면서 "광주형 디지털 뉴딜은 국가 전략이다"고 말했다.

"광주형 건축물·도시분야 탄소중립 방안"에 대해 강의한 이명주 교수는 그린리모델링과 건물 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시 소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물을 제안했다.

"한국의 제조업과 에너지 전환"이란 주제로 강의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 특위위원은 "에너지 전환이 야말로 가장 강력한 균형발전의 수단이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는 지방이 될 것이며 기업도 에너지를 따라 지방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시, 지역성평등지수 '최고 등급'

광주광역시 여성가족부의 2019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 측정결과 '상위등급'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16개 시·도 지역성평등지수 발표에 따르면, 상위등급을 받은 지역은 광주, 대전, 부산, 제주 등 4개 시도이며, 중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2단계가 상승한 지자체는 광주가 유일하

다. 여성가족부는 국가와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분야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국가와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조사해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등급 등 4단계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 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

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과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완전한 성평등 상태를 100점으로 보고 산정된다.

광주시는 2016년 상위등급에서 2017년 중상위권, 2018년 중하위권으로 하락하다가 2019년 다시 상위권에 진입하게 됐다.

특히,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영역의 개선이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데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기동취재본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전년 대비 71.1점(5위)에서 4.4점 상승한 75.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여성의 인권·복지영역은 전년 대비 83.9점(15위)에서 2.9점 상승한 86.8점으로 8계단 상승한 7위로 경총 뛰어올랐다.

광주시는 그 동안 2018년 지역성평등지수가 중하위 등급으로 하락함에 따라 취약분야인 '안전분야' 성평등지수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전남개발공사,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는 공기관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

건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안전보건체제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 운영 하는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과 노력으로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공인 인증 취득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건설업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KOSHA-MS)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재해예방 활동 시스템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비적용 사업장 대비 산업재해 발생건수 약 36%, 환산재해자수는 약 21% 감소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개발공사 김철신 사장은 "이번 인증을 초석으로 삼아 건설현장 내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동구, 노인요양시설 '비대면 구강예방사업' 추진

광주 동구 구강보건센터는 건강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비대면 구강병 예방관리 '따로 또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신체건강은 물론 노인건강의 중요요소 중 하나인 구강건강에 대해 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직접적인 관리를 통해 좀 더 지속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 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 지원 ▲자체 교육자료 제작 ▲맞춤형 교육 실시 등 구강관리 역량을 강화해 요양보호사를 구강건강 관리자로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대상시설은 관내 ▲이일성로원(대표 손문권) ▲천혜경로원(대표 강은수) ▲아가페실버센터(대표 주리에) 등 12개 노인요양 시설이다.

서구, 화정1동 제4기 보장협의체 출범

광주 서구 화정1동 제4기 보장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15년 처음 구성된 화정1동 보장협의체는 마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6년간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3,200여명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온 것이다.

이들은 노인 지원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아동 청소년 문화지원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등 크고 작은 나눔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화정1동 마을 주민들도 작년에만 150여명의 후원자가 2,2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는 등 보장협의체 활동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남구, '반짝반짝' 고효율 LED 지원 사업 실시

광주 남구는 취약계층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2억2,300만원을 투입해 LED 교체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22일 "취약계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저소득층 가정 9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20곳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 교체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는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사업이다.

북구,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안정 종합대책 추진

광주 북구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민생경제 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행정·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고용 ▲재난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등 5개 분야 52개 과제를 선정, 계층별·업종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방세 감면, 광주상생카드 사용, 전동시장 장보기 등 행정 지원과 함께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친다.

소상공인 종합 컨설팅, 북구형 디딤돌 특례보증,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교육, 전통시장·전문상점가 지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에 주력한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정부 기금지원제도 안내 등 직·간접 지원도 병행한다.

광산구, 장기방치 노후·위험 간판 정비 나서

광주 광산구가 2월부터 장기간 방치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인 없는 노후, 위험 간판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를 위해 광산구는 21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건물주 등의 신청·접수, 노후간판 현장 전수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후 간판의 노후화 정도, 위험도 등을 고려해 대상 간판을 선정하고, 6월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주인 있는 간판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인 없는 것들은 건물주·관리자 등의 동의를 얻어 철거를 진행한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국전문인재재단
Korea Pro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하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킹맘 삶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관계에서 제1번을 고민합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보험료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00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상속재산목록 결정경정 공고

사 건 번 호 : 2021즈기 2 상속재산목록 결정경정
사 망 자 : 김병곤 (560402-1632418)
최 후 주 소 : 장원도 홍천군 내면 승지동길 77(창촌리)

춘천지방법원 2020년 12월 29일 416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관하여 2020. 12. 29.자 심판문에 첨부한 상속재산목록을 결정경정 되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승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1년 1월 25일

공 고 인 : 김병주, 김선자, 김형곤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97-9, 102동 404호 (죽림리, 죽림휴먼시아)
결정경정 수리일 : 2021년 1월 19일
공 고 기 간 : 2021. 1. 25 ~ 2021. 3. 25